



국제조선전문위원회(CESS) 소개 및 대한민국 의장국 선출 소식

글 : 서울대학교 신종계 명예교수 / jgshin@snu.ac.kr

JECKU와 CESS의 태동

1988년 우리나라는 유럽과 통상 문제 및 대응을 위하여 한국-유럽 양자 회의를 시작하였다. 이어, 일본(1989년), 미국(1994년), 중국(2002년)의 참여로 확대되어, 세계 조선 시장을 좌우하는 5개국 조선업계 대표자 모임인 JECKU가 구성되었다. JECKU는 Japan-EU-China-Korea-USA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세계 조선 경제, 시장 수급, 통상 현안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회의로 발전되었다.

JECKU는 1994년 별도의 조선 전문가 회의인 CESS(Committee for Expertise of Shipbuilding Specifics)를 구성하여 세계 조선소들의 의견을 모으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IMO 등 국제 유관 기관들과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JECKU의 활동을 지원하기 이르렀다.

국제조선전문위원회(CESS) 회원 구성

국제조선전문위원회는 JECKU와 같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KOSHIPA), 일본조선협회(SAJ; The Shipbuilders' Association of Japan), 중국조선협회(CANSI; China Association of the National Shipbuilding Industry), 유럽조선협회(SEA Europe; Shipyards' and Maritime Equipment Association Europe),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NASSCO 조선소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SEA Europe에는 유럽 조선소뿐만 아니라 기자재 회사도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2023년 새 의장(Chairman)으로 신종계 전 학회장 선출

제1대 스페인의 Rafael Gutierrez, 제2대 일본의 lwamoto에 이어 2023년 10월 제3대 의장으로 신종계 전 대한조선학회장(현, HD한국조선해양 기술자문, 서울대 명예교수)이 선출되어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었다.

이와모토 전 의장은 2005년부터 18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2022년 CESS 회원국들은 의장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2022년 한국과 중국의 의장 후보자가 경합하여 신종계 전 학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신임 신종계 의장의 임기는 2023.10월부터 3년으로 한국인 최초의 의장이다.

의의 및 주요 활동 계획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선박 건조 경쟁이 치열하고, 디지털 변환을 통한 자율운항, 스마트 선박, 스마트 조선소의 진화, 그리고 조선 전문 인력과 산업 인력이 감소하는 위기의 조선소 산업 환경이 현재의 상황이다. 모든 조선소들이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또 경쟁해야 하는 시대이다. 당연히 모든 조선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른 나라 조선소들은 세계 제1위의 조선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앞으로 할 역할에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는 의장국 임기 동안은 회원 조선소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기술 교류, 기술 교육, 공동 연구, 국제 규제 공동 대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중국 옌타이에서 열린 JECQU-CESS연차회의에서의 신종계 신임의장 취임연설 2023. 10. 19>



<중국 옌타이에서 신임 신종계, 전임 이와모토 의장 2023. 10. 19>